

# ‘매 타석이 생존 경쟁’ 박민, ‘연타석 대포’ 존재감 각인



KIA 타이거즈 박민이 19일 열린 한화와의 시범 경기에서 4타석 4안타 9회 솔로 홈런을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시범경기 한화전 9회말 홈런 두방에 ‘와르르’ 5대7

### 시범경기 타율 0.455·안정된 수비는 ‘팀’, 내야 경쟁 눈도장 김호령 7경기 연속 안타…복귀전 치른 김도영 무안타 침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박민이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박민은 19일 대전한화생명 불꽃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에서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에 4타수 2안타 2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초반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난 박민은 3-3으로 맞선 7회 중견수 담장을 넘는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4-4로 팽팽하던 9회에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솔로포를 터뜨리며 연타석 홈런을 완성했다.

이날 활약으로 박민은 시범경기 타율 0.455(2타수 1안타), 2홈런 6타점을 기록하며, 팀 내 김호령에 이어 리그 타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범경기 기간 박민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지난 13일 SSG전부터 16일 NC전까지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고, 17일 한 차례 침묵 이후 곧바로 멀티히트로 반등했다.

여기에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내야 경쟁 구도에서 눈도장을 찍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로 백업 역할에 머물렀던 그는 이번 시범경기를 통해 확실한 변수로 떠올랐다.

주전 김도영의 포지션 변화나 체력 안배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카드로, 내야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시범경기는 컨디션 점검 차원이라는 점에서 단정하기 이르지만, 그의 활약은 KIA 입장에서 분명 반가운 흐름이다.

다만 팀은 끝내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9회말 홈런 두 방을 허용하며 역전패했다.

3회 1사 2,3루에서 폭투로 선취점을 내준 뒤 볼넷과 2루타가 이어지며 0-3으로 끌려갔다.

5회 김태균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추격한 KIA는 6회 2사 2,3루 찬스에서 윤도현의 2타점 적시타로 3-3 균형을 맞췄다.

7회 박민의 중월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곧바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가 9회 박민의 연타석 솔로포로 다시 승기를 잡은 듯 했으나 마무리로 나선 전상현이 홈런 두 방에 무너지며 패전 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김호령이 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고, 카스트로가 3타수 2안타로 타선에 힘을 실었다.

WBC 이후 첫 실전에서 나선 김도영은 3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타격감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발투수로 나선 이태양은 20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였고, 계투로 나선 김시훈·한재승·최지민·성영탁이 무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시범경기 2승 4패 1무를 기록 중인 KIA는 20일 한화와의 경기를 마친 뒤 무실점 두산, 대구 삼성으로 이어지는 원정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주홍철기자

## “무패를 넘어 원정 첫 승 가보자”

### 광주FC, 오는 22일 서울FC 상대 원정 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FC서울과 맞대결에서 올 시즌 원정 첫 승과 함께 무패 행진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하나는행 K리그 2026’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올 시즌 개막 이후 4경기에서 1승 3무 승점 6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서울전은 분위기가 반전과 함께 원정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에 열린 김천상무와의 4라운드 원정에서는 프리드손스의 선제골로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종료 직전 실점을 허용하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22세 이하 선수 5명(김용혁, 공배현, 문민서, 안혁주, 정지훈)을 선발로 기용하는 과감한 운용 속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일부 주전 선수들은 교체 출전으로 체력을 아끼며 서울전을 대비했으며, 프리드손스는 올 시즌 마수결이 끝을 통해 골 감각을 끌어올렸다.

광주의 미러이자 유스 출신 센터백 듀오 김용혁과 공배현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며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줬고, 문민서도 광주 중원의 핵으로 거듭날 정도로 성장세를 입증했다.

상대 서울은 올 시즌 현재까지 리그에서 3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송민규를 비롯해 안데르손, 최준, 아잔 등 광주 전반에 걸쳐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로 예상된다.

광주는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집중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다는 각오다.



광주FC 프리드손스가 지난 17일 열린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A매치 휴식기를 앞둔 마지막 경기에서 원정 첫 승과 동시에 개막 이후 5경기 연속 무패를 거둬 2주간 휴식기를 기본 좋게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19일 광주시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광주체육중컬링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첫 출전 동메달’…광주체육중컬링이 보여준 새로운 성공 모델

## 광주 동계스포츠 “우리도 할 수 있다”

### 광주시체육회, 전국동계체전 해단식

광주시체육회는 19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07회 동계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박찬국 광주스키협회장, 송주현 광주컬링연맹회장 등 빙상 종목 단체장과 선수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단식은 선수단 영상 시청, 입상선수 포상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컬링 남자 15세 이하부에 첫 출전, 광주선수단 첫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육중(김현호, 박해성, 유태민, 임강민) 팀이 포상금을 받았고 이준재 효광중 교장(前 광주체육중)은 하계 중심의 훈련 환경 속에서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종목 참

여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불모지 광주 동계체육에 새로운 희망을 증명한 광주체육중 선수단의 값진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동계체전에서 전년 대비 36점 증가한 105점을 획득하며 종합순위 12위 목표를 달성했다. 제108회 대회 14위를 시작으로 제104회·제105회에서 13위, 제106회에 이어 올해 제107회 대회에서도 12위를 유지하며 동계종목 활성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단계적인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했다.

/박희중기자

##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감사패 받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도체육회는 19일 “송진호 회장이 취임 이후 전남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대신해 신정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남축구협회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송진호 회장은 현장 중심 밀착 행정으로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

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이끌었고,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꿈나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학부모와 지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3년간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와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노후화된 축구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힘썼으며 이를 통해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축구 환경을 조성, 전남 축구 저변 확대와 한국 축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박희중기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19일 전남도체육회에서 신정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형 어울림 체육 우수성 입증 ‘통합체육교실 지원’ 13개교 선정 쾌거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전남형 어울림 체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인 ‘2026년 통합체육교실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13개 학교가 최종 선정돼 2천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200만 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장애·비장애학생이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울림 체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매년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학교 현장의 체육 및 특수교사가 직접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며, 선정된 학교들은 학기 중 최소 20회차 이

상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곽춘섭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해남 송지초가 전국 우수 통합체육교실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만큼,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뜻깊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며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운동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전남이 통합체육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